

## 신축건물 '종합관(가칭)' 2014년 2월 착공

내년 초순에 종합관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미래관 옆에 위치한 대운동장 지면 일부를 사용한다. 종합관은 연면적 22,971.13m<sup>2</sup>, 지상 12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우리학교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종합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체육장(농구장), 스타디움, 세미나실 등 ▲지상층: 강의실(일반 및 컴퓨터), 강의실, 컴퓨터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식당, 매점, 회의실, 스타디움, 행정 사무공간 등으로 추진 중이다.

정도영(시설지원팀) 주임은 "종합관은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스터디실과 강의실을 중심으로 설계 중이다"고 말하며 "신설될 종합관 체육장(가칭)은 한성대중으로 인한 낙산관 체육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할 것이다. 종합관에 들어설 체육장은 교내 학생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합관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 그 "종합관 내부 시설은 아직 설계 단계이며 편의시설로 카페, 셀러드 바 등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관 신축은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학생회



▲ 상공에서 바라본 신축건물 '종합관'의 조감도이다.

인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다. 그 이유는 지난 1학기 체전 때, 다음해부터 종합관을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체전과 대동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서인지, 종합관 신축은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소문들을 만들었다. 소문들 중에는 '하나 밖에 없는 운동장이 사라진다', '운동장은 사라지고 농구코트는 테니스장으로 옮겨진다' 등 주로 운동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었다.

운동장 존폐여부에 대해 정도영 주

임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 동안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완공 이후에는 운동장이 농구장 면적만큼 옆으로 이전될 뿐,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며 "농구장은 종합관 안에 체육장을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신성우(행정 2) 체육분과 동아리 회장은 "신축건물 공사로 운동장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각 운동장을 사용하는 동아리는 활동이 없어질 수



▲ 중문에서 바라본 신축건물 '종합관'의 조감도이다.

밖에 없고 신입생도 받을 수 없다"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정도영 주임은 종합관 신축의 목적은 교육환경부족과 2016년쯤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재개발 구역(중문 이하) 지정으로 인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을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부족에 대해 강신일 총장은 "올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청의관(4·5층), 진리관(2·5층), 공학관(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했다. 종합관 신축은 이에 추가적

으로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며 "종합관은 교내에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확보율을 84.7%에서 107.4%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대학인증평가에서 우리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학교 측의 종합관 신축과 관련해, 학생들은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불편과 제약에 불만을 보이며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현재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 열중할 수 있도록 청의관(4·5층), 진리관(2·5층), 공학관(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했다. 종합관 신축은 이에 추가적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201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마쳐



▲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후기 학위수여식의 모습이다.

지난 8월 16일 한성대학교·대학원 학위수여식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학위수여식은 11시부터 개

식사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박사 6명, 석사 143명, 학부 389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2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외에 ▲최우수논문(총장상) 8명 ▲성적우수상(원장상) 20명 ▲공로상(원장상) 22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우훈상 1명 ▲이사장상 1명 ▲총장상 4명 ▲학사 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 ▲공로상 25명 ▲특별공로상 5명 ▲총동문회장상 1명이 상장을 수여받았다.

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여한 박미희(졸업생) 씨는 "기쁜 것 보다는 눈물이 끝나서 너무 흥분하다. 논문 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졸업 소감을 전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 상당히 애정이 많으시다. 자신이 좀 더 노력한다면 더 출산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제한되는 대학으로 결정됐다. 한성대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학위증서 및 상장수여가 끝난 뒤

에는 강신일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강신일 총장은 "졸업생들이 학위과정동안 배우고 익힌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가르치고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졸업 여려움을 지켜보고 응원을 보낼 것이다"며 "모두 한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혁신에 과감히 도전하는 진취적인 용기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스스로를 21세기의 창조 경제 사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원 총 동문회장은 축사에서 "이제 졸업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긴 휴식을 끝내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 말에 이번 학부졸업생 이해원(영어영문 졸) 씨는 공감을 표하며 "사회로 나가게 되어 막막한 기분도 들지만 이제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설레기도 한다"며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의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학부생 때 하고 싶었던 일들에 다양하게 도전해 해보았다. 지금 재학생들도 다양한 일에 많이 도전해 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 본교 사학연금 17억 환수 결정

지난 7월 17일 '한성대학교 사학연금 17억 환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 기사는 교내 커뮤니티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졌다.

사학연금 제도란 사용자(법인)와 노동자(교수)가 50:50으로 퇴직연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퇴직금 제도로 사용자 측에서 전액을 내주던 것을 2000년 초순부터 사학연금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연금지불의 비율을 낮추고자 힘써왔다. 2006년부터 대학노조(한성대 지부)는 교내법인과 단체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의 15%를 되돌려 받게 되었다. 즉, 6년간 개인 부담금 50%를 모두 낸 후, 15%를 상환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15% 상환에 대해 '사학연금 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50:50으로 지불해야하는 것인데, 사학연금의 일정량을 상환해 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는 항목으로 6년간 상환된 사학연금 17억 35만 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신일 총장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교내에서 일부 부담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총 17억 35만 원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연금 환수 방법은 6년간 받아왔던 금액을 다시 교직원 월급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조현호(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성대 지부) 지부장은 "사학연금 15% 상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눈을 맞추어 이뤄낸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교육부에서 환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며 "현재 자료를 보이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학연금 환수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타 대학은 어떻게? 우리학교와 같이 전액환수를 하기로 결정한 동국대는 총 28억 5241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석진(동국대 학보사) 기자는 "동국대의 경우, 교직원이 내야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내(동국대)법인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국대의 경우 사학연금 환수가 아닌 교직원 개인연금 환수를 진행 중이다. 단국대는 지금, 교직원 개인연금 약 14억 원을 환수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총 44개의 대학에서 사학연금 환수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해

지난 29일 교육부가 경영부실대학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영부실대학은 총 9곳이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7곳으로 총 35개였다. 수도권에서는 성결대·성공회대·

신경대·송의여대·웅지세무대가 지정됐다. 그 중 신경대는 학자금 대출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제한되는 대학으로 결정됐다. 한성대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지면안내



2 본교 사극선언, 학생들의 의견분분해



3 촛불진회,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다

5 꿈의 대화, 흥대 클럽 코연을 지배하는 자: DJ Tigger

7 물밑에서 행해지는 음반사재기

### 학생회소식

총학생회 낙산체전 9/23~10/11

### 사령

- 임 부편집국장 정시경(경영 2)  
취재부장 신동석(행정 2) 학술부장 한재원(행정 2)  
사회부장 김근영(행정 2) 문화부장 오그림(무역 2)  
정기자 김서현(의생활 1) 윤지은(의생활 1)
- 면 정기자 이성국(멀티 2)  
수습기자 김동규(역사 1)

# 2013년도 2학기 신임임용교원 안내

환영합니다



**이호신**  
지식정보학부  
연세대  
연세대  
성균관대



**홍승린**  
무역학과  
청주대  
건국대  
(일)마즈야마데



**김태중**  
무역학과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Eliseo Rodriguez**  
언어교육원  
(미)UCLA  
(미)Pepperdine Univ.



**Thato Mokobane**  
언어교육원  
(남)Univ. of Cape Town  
(남)Univ. of Cape Town

※ 이름, 소속대학, 학사, 석사, 박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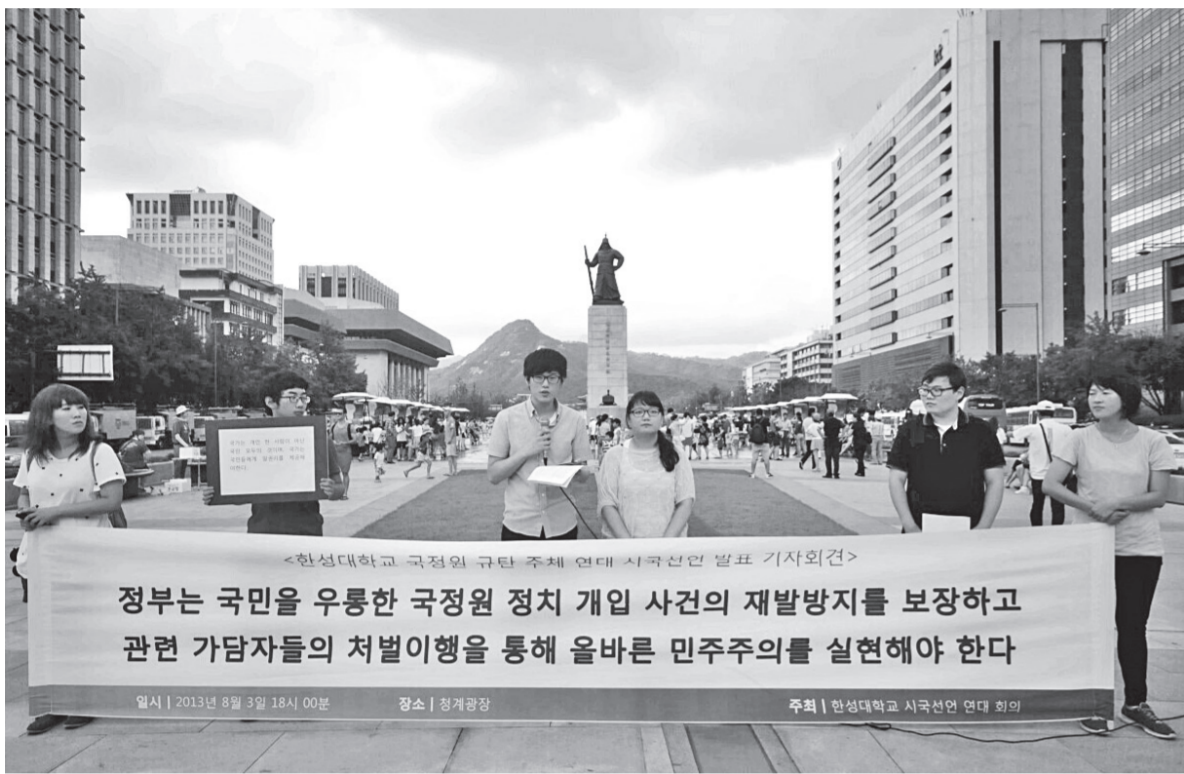
# 사회의 뜨거운 감자 시국선언, 지금 우리학교에서는?

“

총학 측은 시국선언 찬반 투표 결과가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 시국선언에 회의적인 입장

본교 연대 시국선언 측 총학의 모순적인 행동에 실망해 개별 시국선언 진행

”



▲ 본교 시국선언 연대 측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 뒤이어 많은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국선언이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현안에 대하여 바로 잡기위해 하는 선언이나 연설을 말한다. '국정원 선거개입'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국선언이 대학가 및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학

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5일까지 총 8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문의 내용은 총 3문항으로 ▲학교와 학생회이름으로 시국선언 및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에 찬성한다 ▲시국선언 및 성명서 발표는 개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 ▲학교와 학생회이름으로 시국선언 및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보며 총학의 주체성이

결여된 태도를 지적했다. 하물며 설문조사 결과는 보름이 지난 7월 21일 발표했다. 총 479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첫 번째 문항이 57%, 두 번째 문항이 14%, 세 번째 문항이 27%라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 결과상으로는 총학 측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해야 했다. 하지만 김진호(컴공 4) 총학생회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의논했지만 한성대 학생회에서도 학우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율이 7%로 저조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시국선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나중에 발표했다.

이런 총학의 발표에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총학생회장은 우리 학생들의 대표고 학생들의 대표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옹호하는 의견과 '투표결과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결정할 거였으면 대체 왜 한건가라는 비판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지난 7월 22일 박미성(행정 4) 학생이 나중에 학생들이 시국선언 촉구를 위한 글을 게재했다. 그 후 7일이 지난 7월 29일 '한성대 학교, 학생&교직원 연대 시국선언 발표'라는 글을 나중에 작성했다. 이 글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성대학교 학생

72명과 학교 노조에 가입된 교직원들이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다. 시국선언문은 '철저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요구, 재발방지를 보장'을 포함한다. 연대 시국선언을 추진한 박미성 학생은 "총학 측의 활동의지가 적고 일처리에 대해 모순적이며 실망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자발적으로 연대 시국선언 추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주로 사회과학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그 점에 대해 박미성 학생은 "그 점이 아쉽다. 전단지, 자보, 낙메 등을 이용해 홍보했지만 방학 중이라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인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대 측은 '총학 측이 투표율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미미한 투표율이라는 이유와 반대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국선언 단행을 무마시킨 것'이라고 밝히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을 핑계로 결정권을 학우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국선언문에 표기했다.

총학생회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야 한다. 물론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은 힘이 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변하고 이끌어가는 총학의 지지부진한 행동은 향후 남은 학기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엇갈리는 평가가 날 것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한성 글로벌 봉사단 한울 2기 단원 모집해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한울 봉사단 단원모집이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단원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해당 단원들을 대상으로 봉사자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외국인 학생 15명과 내국인 학생 10명이며, 활동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5개월이다. 봉사활동 내용에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원센터 통역봉사와 외부기관 수요에 따른 수시봉사가 있다.

선발의 주요점은 외국인인 사회에 대한 배려심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직전학기까지 총 평점이 평균 2.5이상이어야 하며, 본교 재학생으로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한송이(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지만,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 적다"고 말했다. "이에 내국인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함께 한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국제적 마인드 확립과 대외의 자를 만들고 싶다"며 한울 봉사단의 취지를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02-760-5590)로 연락하면 된다.

### 제3회 독서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해

학술정보관에서 주관하는 독서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이 7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 대회는 한성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 할 수 있다. 대회 개최 일시는 11월 6일 오후 4시이며,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권장도서 중 4개의 지정도서에서 총 44문제가 출제된다. 문제 유형은 학술형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구성된다.

독서경진대회 담당자인 정미영(학술정보관) 차장은 "독서경진대회를 통해 인문교전을 포함한 양서 읽기에 동기부여를 하고싶다"며 "독서력 향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이루어진다. 시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성대', 등록금 의존율 1위

지난 2013년 7월 2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29곳의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성대였다. 본교는 전기이월자금을 포함한 교비회계 전체 수입 842억 5809만원 중 694억 317만원이 등록금 수입으로 의존율이 82.3%에 달했다.

이어 숭실대(76.8%), 세종대(74.7%), 명지대(72.7%) 서강대(70.8%), 한양대(70.6%)등이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었다. 이밖에 경기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도 65%를 넘으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에 속했다.

분석 대상 대학 가운데 연세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41.8%로 가장 낮았다.

## 동정란

**손경연(산학협력단) 교수** 손 교수는 지난 8월 20일부로 『취업전략의 핵심가이드』(성진미디어 출판사)를 발간했다.

**정치희(산학협력단) 교수** 정 교수는 한국증권분석사회 고시위원으로 위촉되어 증권분석사(CIA: Certified Investment Analysts)시험 출제 및 평가와 강의 등을 하게 됐다.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한 영유아 교육행정』(동문사)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정숙(한국어문학) 교수** 이 교수는 『한국현대소설, 이주와 상처의 미학』이 2013년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김창룡(한국어문학) 교수** 김 교수는 『문방열전-한국판』(보고사)을 발간했다.

## 내가 받는 '국가장학금 2유형', 어떻게 책정되나

### 대다수의 대학들 2유형 지급금액 줄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너도나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것이다. 국가장학 수령이 발표되면 대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그리고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나는 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까?', '국가장학금을 정하는 기준은 뭐지?' 소득분위별로 금액이 명시된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만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은 어떻게 선정될까?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국가 장학금의 지원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가계소득 8분위 이하(연간 환산 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지원하는 금액은

각 소득 분위별로 각각 다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것이고 2유형은 장학재단이 대학과 연계해 지급한다. 2유형은 대학별 자체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의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지급하며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배정액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다.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소득분위가 무조건 낮다고 많이 수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1유형과 2유형을 합산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게 위해서이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은 1유형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2학기부터는 수업료 범위 내라도 1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학생은 수령할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재정 건정성, 대학별 부채 현황 및 기타 교육여건을 반영한 지표들 등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금액액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지호(학생지원팀) 주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액을 동결하여 장학재단에서 책정하는 기본 금액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2학기에 장학재단으로부터 총 9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한학기당 소득별 국가장학금 금액〉

소득분위	1유형	2유형	기초생활수급자
0	2,250,000	100,000	
1	2,250,000	100,000	
2	1,350,000	120,000	
3	900,000	120,000	
4	675,000	200,000	
5	562,500	200,000	
6	450,000	180,000	
7	337,500	180,000	
8	337,500	180,000	

\*2유형은 본교의 장학금 지급액수입니다.

##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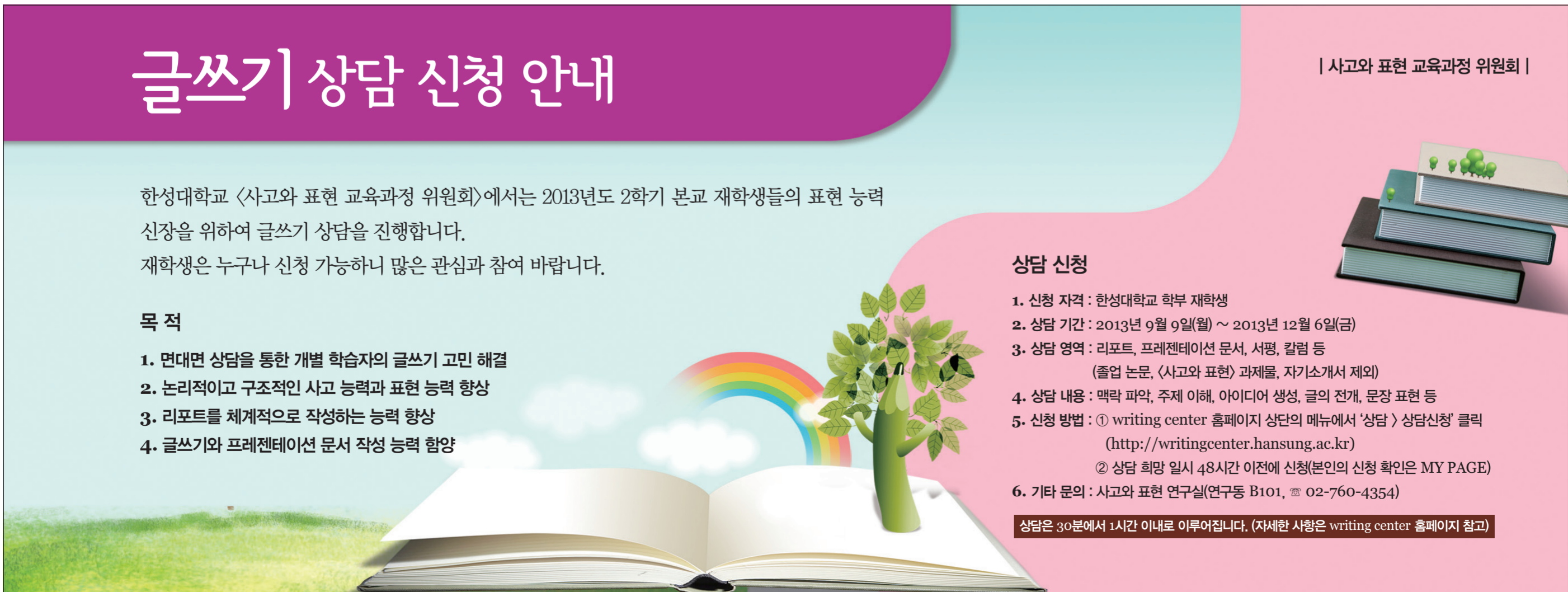
### 목적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 상담 신청

1. 신청 자격: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2013년 9월 9일(월) ~ 2013년 12월 6일(금)
3. 상담 영역: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졸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제물,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집회 시작 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이 조사해 온 자료를 읽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이 자유발언대에 섰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 시민들, 국정원을 향해 촛불을 치켜들다

2013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사건'이다.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촛불집회가 매일같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광화문으로 향했다. 촛불집회는 저녁 7시에 동화문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퇴근시간이라 직장인들은 각자의 집으로, 또는 다른 약속을 위해 저마다 바빠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 직장인들이 걸음을 늦추고 자꾸만 뒤돌아보기 시작했다. 또한 몇몇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하게 시작했다.

검사수사(이하 특검)를 촉구해야하며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들은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중 일부는 서명을 한 후 촛불을 받아 들고 집회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드디어 7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대학생들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집회에 참여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촛불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사회자는 "시민 여러분, 가시는 길이 바쁘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촛불집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회자는 "국정조사는 결국 완전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더 큰 의문만 남겼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법으로 대선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책임지고 조사해야하며 독립적 특검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외쳤다. 이어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시작되었다.

맨 처음 자유발언대에 오른 김성민(대학생) 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불법선거의혹이 일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불법선거를 하려 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발언대에 오른 박현탁(대학생) 씨는 "오늘 집회가 있기 전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움을 느껴 희망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단 댓글들은 야권후보를 비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들이다. 그 댓글들의 내용을 읽어드리겠다"며 조사해 온 자료를 읽어내었다.

##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자유발언대에 올라

자유발언대에는 대학생들만 선 것이 아니었다. 백발의 노인이 마이크를 잡자 집회를 그냥 지나치던 시민들의 시선까지 집중되었다. 노인은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조국의 민주주의가 베팅끝으로 몰린 것을 보고 가만히 앉 아만 있을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대로 몰려선다면 기득권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어떤 짓도 할 것이다. 또한 조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잠들 것이다"고 소리쳤다.

사회자는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면 도대체 투표를 해서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선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며 진행을 이어나갔다.

자신을 촛불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기자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는 "대학교 신문을 빌어 대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녀는 "국정원사태에 이어 이석기 의원실이 압수수색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만행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확인시켜주는 반증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디 대학생들이 이 사건을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이번 일은 각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한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사무처장) 씨는 "소규모였던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커진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니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밤에 시작한 촛불집회는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막을 내렸다. 하나둘씩 촛불이 꺼지고 모여있던 시민들은 다시 각자의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진실을 향한 갈망은 꺼지지 않았다. 또한 그 갈망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몇 번이고 다시모일 것이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관련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대학가는 현재 시국선언 열풍?

지난 6월부터 8월, 예년 같으면 여름방학이라 대학가가 잠잠할 시기이지만 올해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시국선언 열풍'이 불어날 때문이다. 국정원 사태를 접한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 또는 일반 대학생들은 저마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 ▲대학가의 시국선언 행로

6월 19일, 이화여대·가톨릭대 총학생회와 서울여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6월 20일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은 서초동 대경철 앞에서 기자회견

을 가졌다. 같은 날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성공회대·연세대 등 수많은 대학교가 잇달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6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학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속기구 '청년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성신여대 119명의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일반학생들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어

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가 '시국선언반대연합'(이하 '자유대학생연합'으로 명칭변경)이다.

자유대학생연합(이하 자대련)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을 반대한다.

자대련 대표 김상훈은 "각 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을 보면 국정원의 '비민주

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국선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선언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많은 학교들 중, 일부학교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의 학생들만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단행했다. 또한 설문지 자체가 시국선언 찬성으로 유도하게끔 되어있는 학교도 많았다"며 "멀리 있는 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전구가 더 뜨거운 법이다. 국정원의 민주성을 규탄하려면 그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일침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지구촌 이슈

# 미국 뉴욕, 동성애 혐오 살인사건 잇따라

미국 뉴욕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8월 17일 저녁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거리에서 공격을 당한 후 사망했다. 희생자 이슬람 네틀스(21)은 헬멧에서 한 무리의 남성과 맞닥뜨렸고, 그 중 한명이 네틀스의 얼굴을 가격했다. 네틀스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사고 5일 후인 22일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머리부분의 둔기성 손상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동성애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살의 용의자를 폭행 혐의로 검거한 후, 네틀스의 죽음이 현재 뉴욕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는 증오범죄의 일환으로 추정하

고 있다. 뉴욕에서는 약 3개월 전, 5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한 남성이 동반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있던 동성애자 남성 마크 카스(32)을 불러세워 동성애를 비방하는 욕설을 한 다음, 머리에 총을 발사해 살해한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전역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다. 뉴욕 주는 2011년 이를 허용했으며 미국에서 총 12개주가 동성결혼을 이미 합법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혐오로 인해 살인사건이 끊이지않자 미국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천여명의 사상자 발생

지난 달 2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여 최소 1300여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다마스쿠스 외곽 구타는 민간인 거주 지역이므로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리아 국민연합(시리아 반정부 단체)은 이번 화학무기 테러사건의 배후에 정부군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민연합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화학무기 테러사건은 UN의

화학무기조사단이 지난 19일 시리아에 입국해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반기문(UN) 사무총장은 22일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위반된 행동이다. UN화학무기 조사단을 통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리아는 이달로 2년 7개월 동안 내전을 겪고 있다. 시리아내전은 이슬람 시아파인 정부군과 이슬람 수니파인 반군의 종파 대결로 지속되고 있다. UN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1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워싱턴 D.C에서 평화대행진 50주년 기념행사 열려

지난 달 24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설과 워싱턴 평화대행진을 기념하는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수천여명의 시민들은 미국의 인권법과 투표권법 제정을 불렀던 1963년 평화대행진의 뜻을 기렸다.

마틴 루터 킹 3세(킹 목사의 장남)는 "인권법등을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지난 7월 비무장 상태의 흑인 소년을 살해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

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5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진행 중이

라고 지적했다. 50년 전 킹 목사가 이끄는 자유대행진에 참가했던 흑인 남성 헨리 로즈(67)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격차 또한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흑인인권단체인 내셔널액션네트워크(NAN)와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내셔널어니스트(NUL)에 의해 진행되었다. 킹 목사의 실제 연설은 8월 28일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말로 앞당겨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킹목사가 연설했던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연설을 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참석하여 인권평등을 위한 이번 행사의 의미를 고취시켰다.

## 그때 그 사건

# 성대결(The Battle of the Sexes)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Billy Jean King)이 남자 선수 보비 리그스(Bobby Riggs)와 테니스 경기를 벌인 이 사건은 성대결 The Battle of the Sexes 로 불린다. 1973년 9월 20일 미국 텍사스에서 3만 명의 관중과 5천만 명이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하는 가운데 펼쳐진 이 성대결 경기는 빌리 진 킹이 6-4, 6-3, 6-3로 승리하여 10만 달러의 상금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금이 어마어마한 흥행이 아니라 은퇴 즈음의 남자 선수가 자신은 정상적 여자 선수와 대결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공격 비하 발언이 문제였다.

당시 서양에서는 남자 테니스 선수들이 유명했고 대회에서 이기면 상금도 따랐다. 그러나 여자 테니스 선수는 유명하지도, 상금도 별로 없었다. 장학금에서도 밀렸다. 세계 대회는 남성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남자 테니스는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었다. 비록 빌리 진 킹이 당시 세계적인 선수

이긴 했으나 여자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때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선수였던 보비 리그스가 은퇴 즈음의 나이에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여자 테니스 선수는 남자 선수를 못 이긴다고 하면서 빌리 진 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남성우월적인 시각에서 공공연하게 여자 테니스 선수들을 비하했다. 빌리 진 킹은 당시 30세, 보비 리그스는 55세로 25세의 나이 차였다.

빌리 진 킹은 처음에 거절했다. 그러자 보비 리그스가 다른 세계적 여자선수 마가렛 코트와 3세트 경기를 벌여 6-2, 6-1로 이겨 버렸다. 그의 말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자 날 뒤 빌리 진 킹은 보비 리그스와 5세트 경기를 벌였다. 결국 완승하여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마가렛 코트와의 경기에서 이기자 리그스는 역시 여자 테니스가 남자 테니스보다 뒤떨어진다는 등 남성 우월적 언사를 공공연하게 계속했기 때문에 빌리 진 킹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전 세

계가 보는데서 이겼다. 사실 이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

"This is not about money. But, history, equality" 경기에 이긴 다음 빌리 진 킹은 보비 리그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40년 전 한국에서도 전해지자 나는 우선 힘에서 밀리는 여성이 일대일로 남성과 스포츠경기를 벌여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녀가 일대일로 경기를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었다. 역시 미국여성 은 앞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973년, 이 성대결을 여성해방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테니스 단식에서 남자 선수들은 5세트 경기를 벌인다. 여자 선수들은 3세트 경기를 벌인다. 이것이 신체적 차이를 인정해 정해진 규칙이다. 이 점 때문에 남자 선수들은 상금액수가 남자에게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진 킹은 남녀의 상금액수가 같아야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40년 만에 이루어졌다. 오래 경기를 벌이는 것, 남녀의 신체적 힘, 경기력만이 상금액수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는 십년 전 영국 월드컵에 테니스 경기를 보러갔다가 그 해 월드컵을 방문한 빌리 진 킹을 맨발지에서 보았다. 빌리 진 킹이 입점하자 전 관중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쳤다. 남자들도 물론 있었다. 도전을 피하지 않고 맞서 이긴 자에 대한 존경심이라. 당시 여자테니스협회를 만든 빌리 진 킹은 이 성대결 이후 여자 테니스 선수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상금액수도 남자가 같아야한다고 주장하여 40년에 걸친 변화를 이끌었다. 이 성대결은 단지 시작이었다. 나는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쳤다. 내가 해외토픽으로 접했던 그 전설적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찰 뿐이었다. 지금도 빌리 진 킹은 테니스 일을 하고 있다.

우혜전(칼럼니스트)

## 낙산만평

안익영 (애니 4)



## 시각(視角)의 전환, 희망과 가능성의 시작



교단에서

김인경  
(언어교육원 조교수)

무더운 여름을 지나 9월이 되었다. 서서히 2학기에 적응하며 2013년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실천할 때가 왔다. 2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의 마음가지가 달라진다. 1학기에 대한 아쉬움과 한 해의 하반기라는 조급함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학생들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면 좋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

〈블랙(Black)〉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태어날 때부터 시·청각 장애가 있는 미셸이 사하라 선생님을 만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켈러 전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제자 미셸이 훗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하라 선생님을 가르친다는 다른 점이 있다. 미셸은 사하라 선생님이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이 빛 소리를, 빛물의 느낌을, 그리고 함께라는 마음을 진실하게 전달하며 사하라 선생님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하라 선생님이 미셸에게 새롭게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미셸은 졸업식 대표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졸업 가운의 '검은색'을 예로 든다. "제겐 모든 게 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선 검은색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 주셨습니다. 검은색은 어둠과 갑갑함 뿐이 아닙니다. 그건 성취의 색입니다. 지식의 색입니다. 졸업 가운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수많은 행복을 준다는 걸 알려 주셨어요."라며 볼 수 없는 눈이지만 학생들 하나 하나와 시선을 마주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이 영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주는 가르침만이 아닌, 제자가 스승에게 그것을 재인식시켜 준다는 가르침이 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의 어둠이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검은 가운과 같은 색이라는 것 즉, 장애가 성취의 결과라는 시각의 전환

에 대한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검은색을 어둠의 색, 절망의 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검은색은 희망과 가능성을 주는 성취의 색, 지식의 색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시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 어떤 장애도 충분히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와 어려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보길 바란다. 새롭고 낯선 길은 늘 두렵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가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이번 학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좀 더 친절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지금, 혹은 자신의 주변에 검은색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그만큼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 있게 출발선에 서 보도록 하자. 먼 훗날 졸업 가운을 입을 때, 그 검은 가운이 성취와 지식의 색임을 기분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다.

## 지극히 인간 중심 사회의 동물들



기자수첩

오그림 기자  
(무역 2)

얼마 전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그렇게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는데, 이제야 키우게 되었다. 어렸을 적 살아있는 인형을 갖고 싶단 철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다.

나이 50을 앞둔 부모님의 심경변화가 걱정된 것이 가장 먼저였고, 애교를 담당하는 딸네미로서 무거워지는 집안 분위기를 달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두 번째였다.

어느 햇살 좋은 날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다. 가족 한 명, 한 명 대문을 열고 들어 올 때마다 온몸을 바쳐 반기니, 강아지는 어느새 집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전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단지 동물원 철장 속의 동물이 신기할 따름이었고,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가 예뻐 보일 뿐이

었다. 개 한 마리가 지나갈 때면 허겁지겁 뛰는 침 한 방울이 내게 튀기지 않을까, 도망 다니기도 일쑤였다.

그러던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보니 이제 알겠더라. 강아지도 생명체고 풀 속 숨어있는 쥐도 생명체인 것을.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일주, 이주 강아지와 마주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생명체에 대해 놀라게 된다.

초등학생 적 한겨울의 일이다. 학교 앞의 한 집이 화재로 몽땅 다 타버렸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을 고양이들이 물어뜯어 화재가 일어났고, 집은 물론 고양이도 타죽었다.

난 친구들과 폐가 탐방하듯이 불타버린 집에 몰래 들어가, 누가 고양이 만지고 오나 장난을 쳤다. 어른들은 타버린 집에 허를 찔고 고양이는 주인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받지 못했다.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갈 때면 매년 그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 외출할 수 없는 동물이기에 걱정이 앞섰다.

사람의 존재를 두고 많은 철학과 이론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심의 이문사회에 동물은 하등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생명체를 마주하는 데 있어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중심이론은 절대적일 리 없다.

도축한다든지, 애완동물을 기른다든지, 직접 동물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아도 말이다. 나는 특정 신앙 활동을 열렬히 하지 않지만, 다음 생애는 당신이 동물로 태어나 사육당할 수 있다. 지능 정도가 달라진 생명체의 인생이니 존중할 가치가 충분하다.

##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오타쿠로부터



낙산에 올라

권준형  
(영어영문 4)

2010년, 대통령이 닌텐도(Nintendo)를 방문하고 "우리는 왜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만들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닌텐도는 슈퍼마리오로 유명한 게임 기업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대한민국이 이런 게임기를 만들지 못할까? "중요한 건 콘텐트야, 이 바보야."라 말하고 싶다. 무더웠던 8월, 나는 한성대 문화탐방기행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핫카이도를 방문하였다. 다양한 관광 지역은 물론 교류대학인 핫카이도 대학도 방문하였다. 무엇보다 그들의 특산물과 전통을 문화화하여 친근하게 접근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서브컬처라 여겨졌던 오타쿠(Otaku)들의 애니메이션이 일본 문화의 구성요소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새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주장한다. 나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창조할 미래 먹거리를 보았다.

오타쿠는 미디어 덕에 은둔자나 잠재범죄 자처럼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마니아의 동인어이자 다양성을 나타내는 즐거운 단어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 산업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좋아하는 작품과 소재라면 서적, 음반, 피규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콘텐츠 생산자에게 급진적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다. 국내 애니메이션의 약 60%가 일본산이지만 문화 교류의 양방향성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일본에 정착시켰다. 일본 진출 1세대를 넘어 2만 명의 콘서트를 개최한 아이돌 KARA를 보자. 온라인 게임은 어떠한가. 이제는 석탄이 아닌 콘텐트로 무장한 소수정예가 외화를 캐고 있다. 이에 열광한 오타쿠들이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탄

생시키고 소비한다는 점을 주목하자. 정부의 수장은 이런 서브컬처 시장을 간과한 것이 아니었을지. 때문에 섣부른 규제,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같은 초가삼간 태우는 법이 등장한다. 모든 문화에는 피쳐스러운 뒤돌기가 존재한다. 딱딱한 규칙은 활발한 창작을 저해한다. 초점은 유통의 철저한 감시이지 창작의 금지가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이를 소비할 오타쿠들을 음지에서 끌어낼 개방적인 시각과 제도이다. 경제 원리는 이 분야에서도 작용한다.

얼마 전 고양시가 페이스북 캐릭터로 고양이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옹"하는 시의 페이지는 무려 4만 명이 구독한다. 재밌으니 근엄한 시가 가까워진다. 콘텐츠 확산의 키는 이러한 역할상이다. 이정도면 오타쿠, 존중해 주지 않겠는가.

## · 사 설 ·

### 재정지원제한대학을 謀免한 우리대학

지난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서 우리 대학이 벗어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1년부터 교육부가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이유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도 적어진다

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평가요소로 취업률(20%), 재학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7.5%), 교육비환원율(7.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 장학금지급률(10%), 등록금 부담완화(10%) 및 법인지표(5%)를 사용한다.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점수를 매기고 수도권/지방을 통합하여 전체 대학 중 상위 10% 내외를 선정한다. 그다음에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상위 5% 내외를 추가 선정해 전체적으로 15% 내외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수도권에 내에 있는 우리 대학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기와 같은 평가 요소 중에서도 대학 간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요소 중의 하나가 취업률이다. 재학충원율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요소이나 취업률은 일종의 땅따먹기 싸움인 까닭이다. 즉, 국가적으로 일자리는 일정인데, 대학 간 서로 그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제외한 것도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관련 분야에서 치열한 로비를 하였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모면(謀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책임을 피를 써서 벗어남'이다. 즉, 정상적인 활동으로 그 일을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 대학도 올해 초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전 구성원들이 전투하듯 노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간신히 모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면이든 모면이 아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상대평가이다. 또한 교육부는 부담하지만 '폭탄 돌리기'라는 뜬소문도 끊임없이 나온다. 즉, 우리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영향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은 다행히 몇몇 관련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정을 잘 피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논리대로라면 내년에는 한층 더 힘들어 질것이 명백하므로 대학당국은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 2015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현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모면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교내 취업계 대책마련이 필요

대학 4학년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학점, 어학, 자격증, 봉사활동, 대외활동 등 많은 스펙을 쌓아놓고 사회인이 되기 위해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제출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 시작부터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운 좋게 학기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계라는 제도를 이용해 남은 학기를 취업활동으로 대체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취업계란 대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졸업 학점을 대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취업계라는 것이 없어 학기 중 취업을 하면 학교활동은 물론 회사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걸린다. 취업계가 없는 점은 4학년 때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취업을 해도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4학년들은 빠르면 여름방학에 취업을 한다. 이 시기에 직장자들은 직장생활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취업계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조금 이른 퇴근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치여 학교 공부에도 소홀하게 돼 학점 관리

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취업계는 조기취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절실한 제도였으며 실제로 매년 총학생회가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취업계이다. 그러나 대다수 취업에 직면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교측의 사정으로 취업계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저학년 때는 아직 취업이 멀었으니 취업계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천천히 생각해도 될거란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아 왜 우리학교는 취업계가 없을까?'란 생각을 분명 하게 될 것이다. 4학년이라고 해서 학점 관리가 쉬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지원제한대학에 포함 되지 않기 위해 대다수 대학들이 취업계를 시행하고, 취업률을 높이며 안간힘을 쓰는 현 상황에서 취업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취업계는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의 정책 변화로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해 취업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회를 통해 취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계가 실시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공모전 소식

2013 신용보증기금 대학생 광고공모전 ▼

모집기간 : 2013년 9월 16일 ~ 9월 30일  
 모집부문 : TV광고, 인쇄광고  
 지원자격 : 대학생  
 상금 : 대상(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편)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2편)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10편)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유 저작물 창작공모전 ▼

모집기간 : 2013년 8월 20 ~ 9월 20일  
 모집부문 : 파워포인트(PPT) 서식 / 글꼴(FONT) 디자인  
 ※ 글꼴 디자인의 경우 만료저작물 활용 외 순수창작 가능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상금 : [파워포인트(PPT)서식 부문] 최우수상(1인/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2인/팀) 상장 및 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5인/팀) 상장 및 각 상금 50만원 [글꼴(FONT)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1인/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2인/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5인/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일본군 위안부 UCC 공모전 ▼

모집기간 : 2013년 8월 27일 (09:00) ~ 10월 6일 (24:00)  
 업로드한 작품에 한함  
 모집부문 : 동영상  
 상금 : 대상(1편)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1편)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1편)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1편)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상금 20만원



꿈의 대화

# 엘리트 코스가 아닌, 나만의 길을 걷다.

## 홍대 클럽 코쿤을 지배하는 자: DJ.Tigger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고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장용주 학생(이하 장): DJ.Tigger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쪽을 꿈꾸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음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DJ.Tigger(이하 T): 영국 유학 후 한국에 와서 예고에 진학해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하시니까, 음악한다고 하면 원래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니까 외교에 진학했습니다. 외교를 가긴 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공부는 안하고 계속 음악 듣고 여전히 음악은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대학 가면 음악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대학 가지마자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 일단 저는 클럽에 DJ 견습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DJ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클럽 DJ 견습생으로 들어가 소위 '밀바타'부터 배워서 DJ가 되는 방법이라 DJ 레슨을 받아서 디제잉을 배운 뒤 오디션에 가서 정식 DJ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가 되기 위해 진짜 밀바타부터 시작했습니다. 디제잉 뿐만 아니라 클럽 돌아가는 일, 음향 관리 같은 것부터 배웠습니다. 돈을 안 받고 클럽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디제잉에 올인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이 저에게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소속사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면 가수들처럼 어떤 대형 소속사에 소속된 다기 보다 외국 음반사와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블을 만들어 그곳에서 후배도 양성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대형 클럽의 메인 DJ로 소속되어 일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여러 클럽에 게스트 DJ로 일하기도 합니다.

장: 아 그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클럽에 소속하신 분들도 계신거네요. 그럼 레슨을 받아서 클럽 DJ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나요? 아가 말씀하신대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그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DJ분들의 연봉도 궁금합니다.(웃음)

T: 레슨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레슨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 선생님이 아는 클럽을 소개시켜 주거나 오디션 볼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견습생의 경우에는 아가도 말했듯이 클럽에서 밀바타부터 배우기 때문에 선배 DJ들이 보고 실력이 어느정도 되면 무대에 서도 되겠다. 그럼 한 번 시켜보고 그렇게 프로 DJ로 일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연봉은... 행사나 클럽의 규모, 유명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적게 벌면 일반 알바생들 월급만큼 벌 수도 있고, 유명한 프로 DJ들은 억 단

“음악이 꿈인지 그저 취미인지 헷갈릴 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디제잉에 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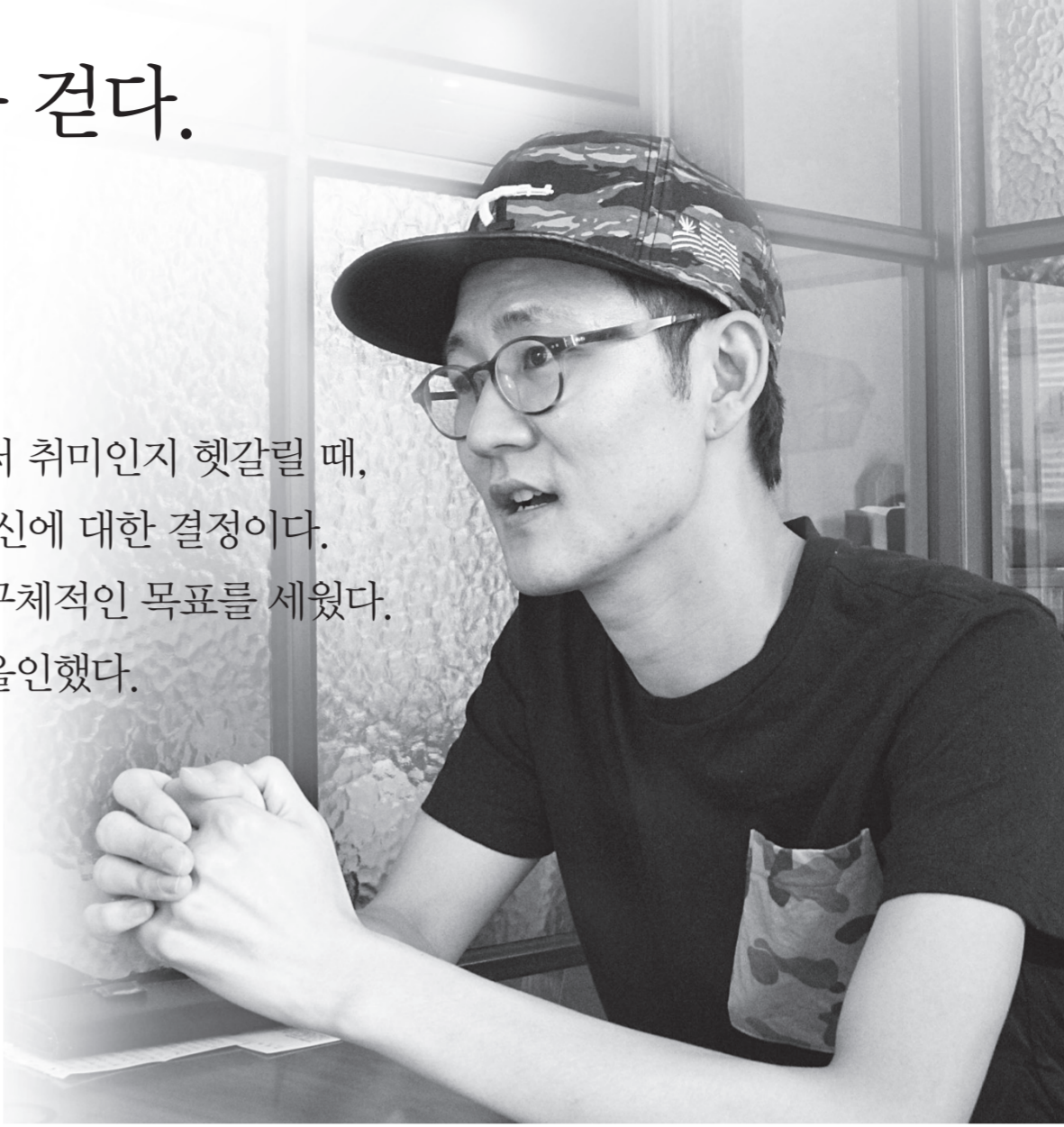
위로 별 수도 있고요. (웃음)

장: 아, 아마추어 DJ와 프로 DJ간의 차이가 있겠네요. DJ.Tigger님은 DJ가 되기까지 어떤 힘든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꿈을 포기할까 생각이 들었더거나 그런 일들이요

T: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니다. 1년 가까이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고향이 부산인데 다짜고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친구 집 전전하며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고 새벽까지 클럽에서 일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졌습니다.(웃음) 어머니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니다. 프로 DJ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운 좋게 한 클럽에서 DJ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유명한 DJ들과 교류 하면서 인맥을 쌓았고 그런 인맥들을 통해 오디션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웃음)

DJ.Tigger는 장용주 학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 클럽 DJ가 되는 방법과 DJ들이 사용하는 장비, 음악의 장르 등 장용주 학생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었다.

장: 음악이 취미인지 꿈인지 헷갈려 하는 저 같은 청춘들이 많은데 그런 청춘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T: 레슨을 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디제잉을 취미로 배우는 학생, 프로가 되는 것이 목표인 학생, 두 학생 모두 초반에는 재미있어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어

렵다고 느끼는 지점에 한계를 느낀다.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프로가 되는거고 거기서 멈추면 취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꿈인지 그저 취미인지 헷갈릴 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고, 디제잉에 올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시도를 해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년 안에 어디까지 올라가야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년 안에 어느 클럽의 어느 DJ와 같이 일할 수준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뤘습니다. 오히려 제가 메인디제이가 되어 그 DJ를 섭외 할 수 있었습니니다.

만약 꿈이 있다면 그것에 올인해야 합니다.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사람들이 분명 많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자신을 믿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장용주 학생 역시 DJ.Tigger처럼 '영국 유학을 갔다는 외교 출신'이었던 것이다. 평행이론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나서였을까 정해진 인터뷰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꿈의 대화'를 나누었다. 장용주 학생은 "음악에 대한 꿈이 막연해 혼자 답답했었는데 꿈의 대화를 통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김서현 기자 fmd486@hansung.ac.kr



유명한 DJ.Tigger님을 만나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하고 좋은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고 작곡가와 디제이가 되기를 꿈꾸는 장용주(행정2) 학생과 한성대 신문사 기자가 그를 직접 만났다.

### 쉽게 쓰여진 시

스라

학술정보관 출입학생증 인식기

신두섭(경영 4)

신두섭(경영 4)

내게 친구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제대로 안 보여줬니 네가 제대로 안 보는거니

### 사진이야기



조선풍물(성릉과 정릉)중에서 정릉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다. 돌길을 따라 걸어가보면 제때 임금 풍경을 모인 정릉을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오른쪽 돌은 길은 '신로'인데 왕의 영원이 거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성국(열티 2)

### 교직원을 만나다

## ‘교내프로그램으로도 스펙을 만들 수 있다’

### 정효경 팀원을 만나다.

매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을 학사지원팀에 물어본다. 이 때문에 개강이 다가오면서 바빠진 부서는 학사지원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본 기사는 정효경(학사지원팀) 팀원을 만나보았다. 학사지원팀 교직원들은 저마다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학사지원팀은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교내 시설감각, 강의실, 수업 구성 등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정효경 팀원은 입사 8년차 직원으로 종합 행정실 1번 창구에서 업무 중이었다. 정효경 팀원의 주된 담당업무는 교육과정 편성업무, 글로벌 영어캠프, 디즈니 인터쉽과 그 외 특별시험 운영 등이었다.

정효경 팀원은 “글로벌 영어캠프와 디즈니 인터쉽 업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 접하며 활동 중”이라며 “디즈니 인터쉽의 경우, 학생들이 방학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사지원팀에 가장 많이 들어

오는 질문들은 역시 수강신청에 관한 것이었고, 휴·복학 신청, 졸업이수학점, 다전공 신청에 관한 문의가 뒤를 이었다.

정효경 팀원은 “학기 중에도 시기별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주로 학기초반에는 수강신청 관련 문의가 많고 후반에는 성적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며 “1번 창구가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이므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성적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효경 팀원은 만사의 몸을 이끌고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학교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니, 업무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본 기사가 근무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자 그는 “담당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만족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가 행복하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어 그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뒤늦게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성적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이



▲ 인터뷰를 하고있는 정효경 팀원의 모습

본다. 좀 더 빨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교내에서 지원하는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찍부터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교내 프로그램 중에는 영어 외에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효경 팀원이 알려준 어학공

부팀은 ‘일글리쉬 라운지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라’, ‘해와 인턴십, 교환 학생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두 가지를 강조했다. 수강신청으로 바쁜 요즘 정효경 팀원은 종합 행정실 1번 창구에서 웃으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동석 기자 1236047@hansung.ac.kr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 출처만 밝히면 OK? 밝혀도 '저작권 침해'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블로그·카페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전면 부정한 움직임인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위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글이나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을 때, 내 컴퓨터로 저장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하지만 복사가 되지 않는다.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하기 위해 복사를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로 나타난다. 지난 2005년 네이버는 블로그 기능을 개편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금지 옵션'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참조하는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노력을 비롯이라도 하는 듯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 해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가 금지하고자 하는 것과 사용자들이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저작권(copyright)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기 창작물

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최초의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서적을 인쇄·출판할 수 있는 권리에 국한되었다. 현재는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한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 저작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1440년경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에 대량 인쇄·복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대량 출판은 새로운 부(富)

를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1557년 영국왕실이 특정 단체에게 독점적인 인쇄권을 부여했고 당시의 '복사권'에서 저작권이 유래되었다. 그러다 1709년 영국의 앤여왕법을 통해 세계최초로 '저작권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작자는 저작권(copyright)을 갖게 되었고 이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출판권 자체가 새로운 자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박인기(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과장은 "창작물의 고유한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때 독창성이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창작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차이가 난다.

반면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창작물도 있다. 바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저작권의 위기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들은 '저작물'로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컨텐츠는 인터넷에서 무한 복제와 이용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플랫폼과 다매시스를 통해 저작물들의 활발한 대량 유통이 가능해졌다. 저작물의 배타적 '소유'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상호적 '공유'를 추구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단 복제'를 통한 '무단 공유'가 이뤄진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불법음원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손해가 큰 것은 비단 하루이틀일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토렌트'가 판을 치면

서 저작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상물보호위원회는 토렌트를 통한 불법컨텐츠 유통이 일주일간 총 84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침해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인기 과장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컨텐츠의 불법유통이 자행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불법복제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구제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 침해의 경계

과연 불법 다운로드·공유사이트에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만이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개인 블로그와 카페,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 등을 출처만 밝힌다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일까?

이에 박인기 과장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설가 이외수의 트위터 글을 허락없이 게재한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로 1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바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이용허락을 표시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또는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가 있다. 이는 별다른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 약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단 사용하고 무작정 출처를 밝힐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용을 허락 한 저작물에 한해서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인기 과장은 저작권 침해를 지양하기 위해서 "Pixabay, 프리이미지마켓 등의 무료이미지와 서술시·네이버 등에서 배포하는 무료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 저작권과 문화의 질적향상의 상관관계

저작권이 있을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배포와 재창조가 어려워 이는 결국 문화의 질적 향상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질 높은 컨텐츠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이 창작의 유인인과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결국 진정한 공유(公有)인 것이다.

\*CCL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KOGL :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한재원 기자 123647@hansung.ac.kr



copyright©.2013. 한재원 All Right Reserved

## 다락방 책꽂이

### 천재 오르가니스트의 발걸음



'오르가니스트' /로버트 슈나이더/북 스토리

태어났을 때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 부모에게 미움을 받는 엘리야스. 다섯 살이 되는 해, 신의 저주를 받은 듯 한 외모와 함께 신의 선물을 받는다. 산 속 짐승들과 주파수로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음표는 모르지만 연주할 수 있는 천재성이 바로 그것이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순간부터 불행했던 엘리야스의 삶에 빛이 드는 듯 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엘리야스가 사랑했던 사촌 엘스베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엘리야스의 인생에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한때는 신의 선물이란 줄만 알았던 그의 뛰어난 청력과 천재성은 그저 신의 장난처럼 느껴진다. 이에 잠을 거부한 채 잠자는 시간마저 엘스베트를 향한 사랑을 연주한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어느살인자의 이야기)>의 아류라고 혹평받기도 한 『오르가니스트』. 하지만 독자들의 청각을 사로잡고 전율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 IT한 소식

# 애플 혁신의 뒷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애플은 돈잔치, 부품 업체는 적자

영화 '잡스'가 8월 29일 개봉됐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따지고 보면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지상파는 물론 신문, 온라인 등 주요 언론이 며칠간 경쟁적으로 열띤 취재를 벌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만큼 유명세를 탄 외국인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애플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제품은 단연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과 함께 최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 아이폰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혁신'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폰이 대한민국의 판매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비싸고 불편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것이다"고 틀린 말도 아니다.

실제로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법정 다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독창성과 혁신에 가치를 두고 지구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인생을 바치고 있다"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경쟁자가 노골적으로 배기도 못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애플이 주장하는 혁신은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 당연하지만 좋은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고 조립하는 업체는 적



자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조립하는 중국 폭스콘 노동자의 연속된 자살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이폰, 아이패드에는 국내 업체의 부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플은 '슈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엄청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

부품을 많이 구입할 테니 충분히만 들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후에는 재고를 보전해주겠다며 부품의 추가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 애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0%를 육박한다. 최근 실적에서도 26%에 달했다.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엄청난 수치다. 이러한 뒷면에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뒤따랐다.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적당한 가격에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던 원동력인 셈이다.

얼마 전 남양유업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됐다.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어떻게 다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남일 대하듯 제대로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수현 기자 shulee@ddaily.co.kr

##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 식초 건강법 허와 실

식초가 됐다. 한낱 조미료에 지나지 않던 식초가 당당히 '기능성 음료'로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도대체 왜들 식초에 열광하는 것인가?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식초 건강법의 허와 실을 파헤쳐보자.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식초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산과 알칼리에 대해 과학시간에 배운 상식을 동원해 생각해 보면 분명 식초는 산성이다.

즉, 식초의 pH를 측정해보면 중성인 7보다 한참 낮다. 그러나 식초는 알칼리성식품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식품을 산성식품, 알칼리성식품으로 나누는 기준이 식품 자체의 pH가 아니기 때문. 식품을 산성, 알칼리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섭취 후 혈액의 pH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품에 들어있는 수소의 온의 농도가 아니라 무기질의 종류 및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기질 중에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으면 산성식품이고, 인이나 황 등이 많으면 알칼리성식품이 되는데, 식초의 pH를 측정해보면 분명히 산성에 속하지만 식초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알칼리성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사람의 정상적인 혈중 수소이온 농도(pH)는 약 7.4 정도로 약한 알칼리성. 이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져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때문에 좁은 범위 내에서 정상 pH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곡류나 육류가 모두 산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혈액의 pH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들을 충분히 먹어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식초는 곡류나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심상한 푸른 채소에 식초를 뿌려 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촉 처지고, 색도 누렇게 변해버린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와는 정 반대로, 식초에 의해 더 파릇파릇 되살아날 수 있다. 짙은 피로와 노화의 원인물질 중 하나.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은 젖산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대사를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과일로 만든 식초는 과일의 항산화성분이 더해져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노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초는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굴처럼 상하기 쉬운 해산물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채소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궁합이다.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하루 소주잔 한잔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시거나 5배 이상으로 희석시켜서 마시는 것이 좋다.

식초는 소금의 섭취를 줄이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미료이다. 고혈압에 신장질환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부종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이 꼭 필요하다.

저염 식이요법의 문제는 맛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저염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맛이나 매운맛 등 짭짤 대신 다른 맛을 이용하면 염도가 낮아도 더 맛있게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서 성공적인 식이요법을 할 수 있게 된다.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하거나 S라인을 만들기 위해 식초를 마시는 것도 크게 기대할 것은 아니다. 식초는 뼈의 칼슘을 녹여내지 못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없다. 게다가 시판 식초음료에는 액상과당이 꽤 들어있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보기는 어렵다.

패션도 음식도 무조건 유행을 좇아가기 보다는 나에게 맞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나만의 패션 스타일, 나만의 건강법이 있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량 원장>

# 한국음반시장의 부끄러운 음반사재기

## 음반시장 “관계자들은 다 안다”는 공공연한 음반사재기

언제부터 음악이 우리의 생활에 일 부분이 되었는지 구분하기 모호하다. 부모의 흥얼거림으로 살며시 다가온 걸까. 아이러니 할 것 없이 현재 우리는 어느새 이어폰을 꼭 가지고 다니며 음악을 즐긴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멜론’이나 ‘애플 뮤직’ 등 대형 음원 유통사의 스트리밍(음원 다운로드 없이 음악을 듣는 것), 다운로드를 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소비자들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에 따라 당시의 음원 인기 목록(이하 인기차트)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 수는 저작권료에 반영되어, 이후 정산된 저작권료는 음반 제작사 등에 분배된다. 주요 방송사의 음악방송들은 인기

차트를 기준으로 가수를 섭외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음악방송은 ‘어느 가수’가 이번 주 인기차트의 1위인가로 막을 내린다. 7일 동안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환대 받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음반시장은 ‘음반사재기’의 비옥한 밑거름을 내주고 있었다.

최근 ‘음반사재기’가 음반시장의 문제선상 위로 떠올랐다. ‘베스트셀러, 책 사재기’와 같은 형식으로 음반을 사재기하는 것이다. 음반사재기의 속 모양새는 이렇다. 음반 제작사 혹은 제작자가 브로커(마케팅 회사)에게 소속가수의 노래를 인기차트의 상위권에 올려줄 것을 의뢰한다. 의뢰받은 브로커는 음원유통사의 수 만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해당 음원을 수없이 스트리밍, 다운로드 한다. 2-5억 원의 의뢰비용이 들지만, 대중에게 마케팅효과가 일어난다면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성과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음반 유통사를 통한 음원 구매는 한 곡 당 약 600원이지만,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곡을 2배 이상 저렴하게 스트리밍,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노려 국내 브로커는 해외 음반시장보다 용이하고 저렴하게 해당 가수의 곡을 인기차트 상위권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음반유통사인 ‘아이튠즈’의 경우, 한 곡당 약 100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음반이용료를 높이는 것으로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기도 하다.

인기가 많을 것 같았던 유명 가수의 노래 혹은 화제를 몰고 온 노래가 인기차트 상위권에 순식간에 내려온 것을 목격한 적 있다. 아마도 당신은 음반사재기의 현장을 본 것이다.

음반사재기는 며칠 전 일어난 큰 사재기사건으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음원시장이 틀을 갖췄을 때부터, 공공연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던 뒷거래였다. 음원이 디지털화 되면서 사재기가 용이해지고 상업적인 사재기가 이뤄진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한 음반 제작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지난 8월에 YG, SM, 스타제국과 같은 대형 음반 제작사들이 힘을 합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재기의 문제를 직시하였다. 대중들 앞으로 이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저작권 사용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근절 대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재기 성공 시, 성과 이익이 저작권사용료보다 부수적인 수익에 큰 비중이 있는 것, 브로커 검출의 어려움 등으로 보아 한시적인 방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본적인 브로커와 제작사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어두운 시장의 거래만큼 밝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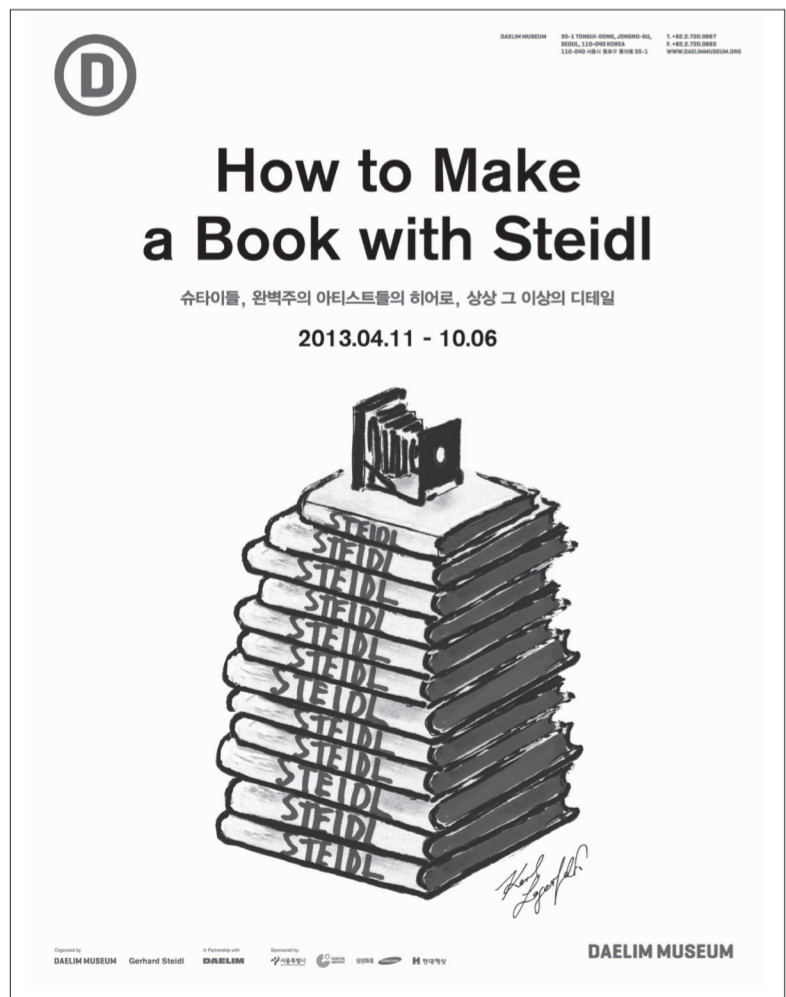
한국문화가 세계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음반 사재기’라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일러스트 이예림, 김효진



##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 슈타이들展》

예술적 관점으로 출판의 과정을 풀어놓은 전시회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책도 디지털매체를 통해 보는 스마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의 물결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리워 지곤 한다. 이런 디지털시대 속 아날로

그에 감동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전시회가 있어 찾아가보았다. 대림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 슈타이들展》이다. 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 게르

하르트 슈타이들(Gerhard Steidl)은 1950년 독일 태생으로 1972년 첫 책을 출판한 이후 문학, 사진, 예술서적에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직접 모든 공정을 진행하는 그는 현재까지도 매년 400여권의 책을 출판하며 세계적인 출판가로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시대와 출판계의 변화 속에서 한 권의 가치 있는 책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슈타이들과 아티스트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 종이책 한 권이 가지는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전시는 총 4층에 걸쳐 진행 중이다. 1층은 《Intro & Steidl Pop up Store》로 슈타이들과 협업한 아티스트들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작은 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서는 포토그래피 코트 볼로포의 시각으로 바라본 슈타이들과 그의 작업장이 담긴 사진을 통해 그의 개인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작업한 책들도 만나 볼 수 있다. 다른 편에는 갓 인쇄된 책의 향기를 재현한 향수 페이퍼 패션(Paper Passion)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3층에는 칼 라거펠트가 슈타이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샤넬의 각종 인쇄물 및 원본 스케치, 타이포그래피가 전시중이다. 실제 그의 작업에 사용되는 종이를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거



▲ 작업중인 슈타이들의 모습

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4층에 올라가면 회화 작가 짐 다인의 판화와 작품 제작과정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 외부에 마련된 D라운지에선 슈타이들의 작업과정을 예피소드와 함께 풀어낸 88 분가량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시 상영 중이다.

이번 전시는 시각적이고 평면적으로 전시물을 소개하는 단순한 1차원적 전시를 넘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출판의 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선별 과정부터 타이포그래피, 이미지의 크기, 책 표지 선정 등의 디자인 요소 결정 과정, 제본과 최종 인쇄에 이르는 출판의 과정을 관람객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슈타이들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과정을 한 번 탐승하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잠수함에 비유했다. 다가오는 가을, 출판의 과정을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놓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슈타이들의 잠수함여행에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전시는 10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도슨트들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서 전시를 설명해주는 가이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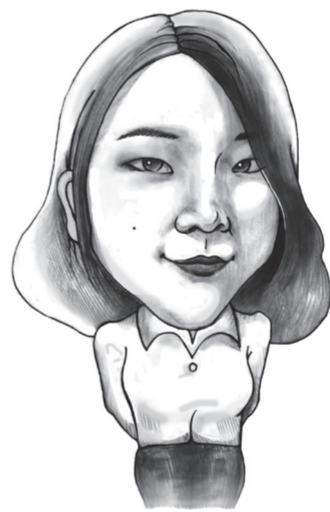
윤지은 기자 yoonyoon@hansung.ac.kr



▲슈타이들이 작업한 타이포그래피

◀슈타이들과 협업한 샤넬의 각종 인쇄물들

## 당신은 페이스북을 하십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오히려 나에게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 문화읽어주는 기자 정시경

“페이스북(페이스북의 줄임말) 해요?” 꽤 많이 듣는 말이다. 안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왜 안하냐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엔 알겠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일이 많아졌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닌 모양이다.

페이스북 열풍이 한창 불 뿜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이 왜 페이스북은 하지 않느냐’는 친구의 말에 나도 한번 그 유행의 물결을 타보기 위해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페이스북의 재미에 흠뻑 빠져있었다.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싸한 것이었다. 어쩐지 알 수 없는 불편한 기분의 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소통은 소통이었으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는 일방적인 소통구조라는 생각이 지우기 힘들었다. 일단 나

부터 그랬다. 드는 생각이 있으면 배설하듯이 즉각 글을 올리지 않았던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말이다. 덧글과 ‘좋아요’ 버튼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 흐름이 딱딱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언젠가 부터는 글을 올리기가 망설여졌다.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정말 친하지 않으면 속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흔하더라. 내 생각을 올리려고 하다가도 그 몇몇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생각을 읽는 것이 싫어서 글을 안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겪다보니 나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은 소셜 네트워크가 오히려 나에게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에 대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제 3의 렌즈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는 페이스북으로 잘 드러난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릴 것이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사진을 올릴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리 쌍방향적인 소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좋아요’버튼도 눌러주었으니,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같다고 해야 하나. 결국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한 나는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에서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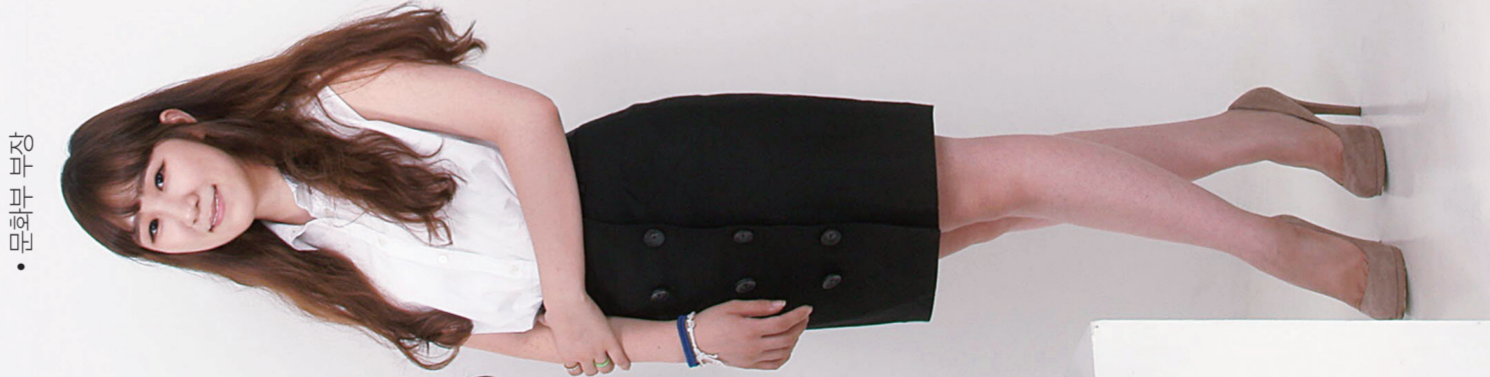
페이스북 계정을 지웠다든 소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페이스북이 그리 순기능만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는 아니라는 소리일 것이다.

# 빨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 윤지은 13학번  
• 문화부 정기자



• 정시경 12학번  
• 부편집국장



• 오그림 12학번  
• 문화부 부장



• 김근영 12학번  
• 사회부 부장



• 김현심 10학번  
• 편집국장



• 한재원 12학번  
• 학술부 부장



• 한정은 12학번  
• 취재부 정기자



• 신동석 12학번  
• 취재부 부장



• 김서현 13학번  
• 취재부 정기자

##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지원자격 : 13학번 재학생 (인문대, 사회대, 예술대, 공과대 학생 모집)
- 모집분야 :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기지혜택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기자 인증서 발급
- 선발전형 : 입사지원서 작성 후 면접
- 문의사항 : 02)760-4186 / 010-3406-2237 정시경 부국장 / kyung@hansung.ac.kr